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문득 울려다본 하늘이 어느덧 아득히 높아져 있다. 높아진 하늘만큼 소리없이 가을이 찾아들었다. '우리 맞잡은 손에 땀을 나게 만들던' 그 뜨거웠던 여름은 간 데 없고. 그렇게 슬며시 찾아 온 가을은 '혼자 지내기에 너무 아쉬움이 남는' 계절.

삼상(爽爽)한 가을바람이 손짓하며 부른다. 지금은 불온한 꿈도, 가벼운 일탈도 모두 다 허용하겠다는 듯이. 그래그래, 가을은 그리움을 안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에 좋은 계절. 익어 가는 이 가을에 텅 빈 가슴을 그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길을 떠나기로 한다. 오가는 길에 읽을 요량으로 책 한 권도 챙긴다. 나희덕 교수가 최근 펴낸 '한 점시의 시'. 현대시를 아주 쉽게 풀어 쓴 시론(詩論)이다. 책은 달고 맛있었다. 덕분에 가을이 더욱 풍성해졌다. '진절환희덕 씨', 고마워요.

여수 밤바다는 '글썽이며 겁게 반짝이고' 있었다. 바닷가라면 아무 데라도 좋았다. 검푸른 바다가 보이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돛자리는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맨바닥이어도 괜찮았다. 아무려나, 좋았다.

쌓여 가는 소주병 수만개나 여인들의 얼굴도 발갈게 물들어 간다. 만산홍염(滿山紅暎)이 아니라 만면홍조(滿面紅潮). 그래도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으리라. 단풍잎처럼 타오른 그 얼굴, 어느새 짙게 깔린 어둠이 가려

주고 있으니. 더군다나 한없이 너그러운 바다. 저 앞에 출렁이고 있잖은가.

여수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간다. 취기가 오르자 흥얼흥얼, 동행한 두 여인들의 입에서 절로 노래가 나온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아 아 아~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의 야외 노래방

흥이 도도해지면서 이윽고 '진도아리랑' 가락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하다' 했던 어느 시인의 시구를 잊은 지는 이미 오래. '노다~ 가세, 노다~ 가세' 메기는 소리(선소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밤하늘마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게 하는데.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밤의 소리(여음, 후렴구)는 낮게 깔려 출렁출렁 바닷물과 함께 출렁인다.

저만큼 떨어져서 낚시를 하다 말고 다가온 낚시꾼이 부러운 눈길로 말을 건넨다. 아무래도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모양이다. 여수의 밤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아침 늦게 해장을 한 뒤 곧바로 진도로 향한다. '개도 붓을 물고 다닌다'는 예술의 고장 진도로. 목적지는 조선 남종화의 산실인 윤림산방

(雲林山房)이다. 침찰산(尖察山) 깊은 산골에 아찔지덕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雲林)을 이룬다 해서 이름 지어진 윤림산방. 일가직계(一家直系) 5대(五代)의 화맥이 2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곳. 최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가 보고 싶었던 곳이다. 표(성인 2000원)를 끊고 안으로 들어서니 우선 널따란 연못이 보인다. 특이하게도 오각(五角)으로 만들어진 연못 한가운데에는 원형으로 된 섬이 있다. 섬에는 또 수령이 150년은 넘었을 법한 배롱나무가 우람하게 자리 잡았는데 아쉽게도 꽃은 지고 말았다. 그래도 어디선가 본 모습 아닌가 했더니 아, 이곳이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촬영지란다. 바람둥이 선비 배용준이 학처럼 고고한 열녀 전도연을 맡겨 놓았던 바로 그 영화.

연못을 돌아다니니 한 그루의 매화나무 앞에 사람들이 무리 지어 서 있다. 매화나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마침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이 설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의 초의선사(1786~1866)가 소치 허형(1809~1892)에게 선물한 일지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화나무는 소치가 심은 그 나무가 아니라 후대목을 복원한 것이다. 허씨 집안의 예술적 끼를 이어받은 것이

까. 때론 판소리 가락을 섞기도 하고 때로는 아쟁 소리까지 흉내 내며, 해박한 지식으로 윤림산방을 소개하는 해설사 허상무(64) 씨의 입담이 구수하다.

사람들이 매화나무 옆 작은 기와집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드디어 윤림산방이다. 소치 선생이 만년에 그림을 그리던 화실. 현판에 적힌 낙관을 자세히 보니 '백련(百鍊)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의재 허백련(1891~1977, 소치의 방계 고손자)의 글씨란다. 윤림산방 뒤로는 소치가 기거했던 살림집(초기집)이 있다.

윤림에서 팽목항을 바라보며

소치는 글과 그림과 글씨를 모두 잘해 삼절(三絶)로 불렸다. 심지어 임금의 벼루에 먹칠을 찍어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왕(한종)의 총애를 받았던 선비 화가다.

이런 그를 스승인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암록강 동쪽에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며 칭찬했다고 한다. 어릴 적 해남 녹우당의 화첩을 보며 그림을 익혔던 소치가 추사의 제자가 된 것은 초의선사의 소개 덕분이었다.

윤림산방은 그러나 소치가 숨진 뒤 아들 미산 허형(1862~1938)이 팔고 떠나면서 옛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고, 이후 미산의 큰

아들이 다시 사들인 후 1982년 작은아들인 남승 허건(1908~1987)이 원래대로 복원했다. 현재는 남승의 조카와 손자들까지 여럿이 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니 일가 직계 5대의 화맥이 이곳 윤림산방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소치기념관에 들러 양친 허씨 일가 5대의 그림을 감상한 뒤 천천히 윤림산방을 돌아 나온다. 남도전통미술관과 진도역사관은 잠깐 스쳐 지나고 윤림산방 바로 근처에 있는 썩게사에 들른다. "아, 이곳에도 썩게사가 있었네"

돌아오는 길. 강변 길에 보았던 '팽목항 00 km'의 이정표가 눈에 어리다. 팽목항, 차마 그곳은 갈 수가 없다. 정말이지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그저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차마 가기 힘들더라.

그냥 되돌아 나오는 마음이 아팠다. 가을 향기를 찾아 떠났던 짧은 여행의 끝자락이 슬프다. 마치 진도아리랑의 여음(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처럼 아리고 쓰리다. 아직도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채 캄캄한 바닷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외로운 닢(孤魂)들을 생각하면, 더욱 아리고 쓰리다. 벌써 6개월,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덧없는 세월만 간다.

“남수단의 웃음, 자네들이 찾아주게”

살레시오교 교사 출신 원 신부 새정치 우윤근·새누리 이정현 등 옛 제자 찾아 도움의 손길 청해



정의화 국회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남수단에서 찾아온 원선오 신부와 공민호 수사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현 신부, 이 최고, 공 수사, 정의장, 원 신부, 우 원내. /연합뉴스

고(故)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튼츠'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남수단에서 온 외국인 신부와 그 일행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직접 영접, 관심을 보였다. 원선오(86)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벽안의 신부가 국회에서 여당 최고위원과 야당 원내대표를 나란히 만나게 된 까닭은 광주 살레시오교 동창생인 두 정치인의 흔치 않은 '은사'였기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과 우 대표는 원 신부를 만나자 포옹을 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가 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반가운 손님'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 신부는 16세에 교황 이탈리아를 떠나 칠십 평생을 살레시오 수도회 정신에 따라 어려운 나라를 찾아 희생과 봉사를 실천했으며 한국에서도 살레시오교 등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난 1981년 수단으로 떠났다.

원 신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수단에서 한국을 방문해 옛 제자들을 만난 까닭은 남수단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남수단 마을학교 100개 짓기'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2011년 7월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신생국인 남수단은 독립 전까지 40여년 가까이 내전을 겪으며 많은 것이 파괴됐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어 나무그늘 아래에서 판자 하나로 수업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살레시오회 선교국과 돈보스코 나눔의 집은 '남수단 마을학교 100개

짓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살레시오회는 광주의 살레시오교, 서울의 돈보스코 직업 훈련원을 만들어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남수단에 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이 최고위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해외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남수단에 도움을 줄 차례가 됐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때문에 살레시오회 선교국과 돈보스코 나눔의 집은 '남수단 마을학교 100개 짓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살레시오회는 광주의 살레시오교, 서울의 돈보스코 직업 훈련원을 만들어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남수단에 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이 최고위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해외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남수단에 도움을 줄 차례가 됐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나푸르나 눈사태 韓·日해협 연안 수산관계자들 여수서 회의

사망24명 실종80명...역대 최악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어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폭설과 눈사태로 트레킹하던 외국 등산객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FP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지난 이틀간 안나푸르나 봉쑤트라 고개(해발 5461m)로 가는 길목의 머스탕 지역과 마냥 지역에서 자국민 12명을 비롯해 캐나다인 4명, 폴란드인 3명, 이스라엘인 3명, 베트남인 1명, 인도인 1명 등 모두 24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60여 명이 현재 구조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0여 명이 실종상태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사고 당시 쑤트라 길목에는 모두 168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 중 한국인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팔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네팔 당국과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한국인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바다를 끼고 있는 한·일 해협 연안 수산관계자들이 17일부터 서울간 여수에서 모인다. 1993년부터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및 나가사키, 야마구치, 사가, 후쿠오카 등 8개 지역이 참가해 한국과 일본이 교대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올해로 22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수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한·일 양국의 수산자원 조성 실태, 어촌마을의 관광 활성화 방안, 산나지의 생태, 마을 어장 내 갯녹음 현상에 대한 공동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한다. 또 회의의 기간 중 여수 남방해역에서 조피볼락 치어 2000마리도 방류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뒤바뀐 광주시 국감' 1면에서 계속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윤 시장께서) 행정기관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다 직접 행정을 하게 되니 힘든 점이 많으실 것"이라며 "광주는 훌륭한 곳이다. 대통령 공약도 현명하게 대부분 신규 사업을 요구했다. 반면 대구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해 실속이 별로 없다"라며 광주시를 추켜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작심이나 한 듯 송곳질문으로 윤 시장을 몰아붙였다.

유대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서 답뱃값을 올려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묻은 뒤 윤 시장을 향

해 "선무당이 사람잡지 말고 잘 파악하라. 업무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며 인신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특히 "공무원 징계 현황과 출자출연기관 경영기치 하락 등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 대신 윤 시장이 직접 답변서를 써라. 그래야 (행정을) 안다"라며 상식에 어긋난 주문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첫 인사에서 측근도 아니고 보은도 아니고 절친인사를 했다"면서 "깜코사건 처리과정과 비엔날레 '세월호' 부분에서도 지역민을 상당히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시장은 "광주에서 65년을 살며 시민사회운동을 했다. 오히려 인연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항변했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제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볼세라, 써미지, 해너겟 복합치료
② 하드롤 레이저 : 스쿠스원,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③ 제오 레이저 : 켈락스, 다이오우드제오
④ 피부 미백 : 쿨미니스원, 엑셀V, 켈락스 쿨미레이저
⑤ 주름·흉터 :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임크로, 프락셀더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⑥ 모공 : 변지, 프락셀5종
⑦ 비만 :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 385-7575, 1177 | 에스테틱 :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 528-1415 | 무료전화 : 080-707-7575 | 에스테틱 : 525-7555